

야생화 농장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전라북도와 그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

윤상기* · 이명우**

*전북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1. 연구목적

본 연구 목적은 야생화 농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그 인접지역 대상지를 중심으로 2005~2007년의 야생화 종류별 및 과별 재배량, 출하계절 및 주 판매처, 향후 전망있는 야생화 종류 등을 조사하여 주 재배 종류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야생화 재배업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검토를 통한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환경정책변화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전라북도와 그 인접지역의 야생화 재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미래지향형 야생화 농장의 설계안을 제시해 보는 것이다.

2. 연구대상지

조사는 전라북도와 그 인접지역에서 야생화를 전업으로 하는 농장 중 「남부자생식물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여섯 농장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야생화 재배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 농장간의 지역적 거리를 두었으며, 농장 규모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조사대상 농장들의 지역적인 입지 및 기후특성 등을 알아보았다.

입지특성은 내륙 산지형과 해안 평지형으로 나누었으며, 기후특성으로는 온도, 강수량 등을 조사하였는데, 특히, 육상식물과 수생식물을 함께 재배하는 2개소 농장의 규모가 다른 농장보다 비교적 커서 수생식물의 재배는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II. 연구방법

조사방법으로는 선행논문에서 검토된 관련 문헌조사와 현지 설문조사를 함께 병행 실시하고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임시 설문지를 작성하여 2008년 2월 27일~4월 30일 사이에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다시 6월 28일~7월 15일 사이에 2차 조사를 하여 야생화 종류와 조사항목 및 내용을 보완 작성하였고,

2008년 8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조사 대상지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재배종류와 사항들로 임시 설문지 작성한 후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대상농장을 방문조사 후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재배량 특성

1) 종류별 재배량

야생화의 종류별 재배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6개의 야생화 농장에서 3년간 야생화 64종류의 총 재배량에 대한 3년간 야생화 각 종류의 재배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노랑꽃창포가 10%를 차지하고 물억새 9%, 억새 8%, 갈대 7%, 꽃잔디 5%, 수크령 5%, 맥문동 4%, 꽃창포 3%, 별개미취 3%, 구절초 2%로 나타났다.

노랑꽃창포, 갈대, 부들, 택사, 창포, 물옥잠 등의 수생식물과 물억새, 억새, 수크령 등의 습생식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하천의 “환경 친화적” 관리 즉, 자연형 하천 복원공사나 친환경적인 제방 조성공사 등으로 대량으로 소비되면서 야생화 농장에서 재배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과별 재배량

야생화의 과별 재배현황은 물억새, 억새, 갈대, 수크령 등의 벼과가 전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노랑꽃창포, 꽃창포, 붓꽃, 범부채 등의 붓꽃과가 15%, 구절초, 별개미취, 원추천인국 등의 국화과가 13%, 맥문동, 원추리, 비비추, 산마늘 등의 백합과가 9% 등으로 나타나 벼과와 붓꽃과가 전체 재배량의 45%를 차지하였다.

물억새, 억새, 갈대, 수크령 등의 벼과는 대량소비로 인한 재배량이 급격히 늘었으며, 노랑꽃창포, 붓꽃, 꽃창포 등의 붓꽃과는 노랑꽃창포 때문에 재배량이 많아 보이지만 점점 그 재배량이 감소하고 있다.

3) 시대의 변화에도 꾸준히 소비되는 야생화 종류

6농장 중 꾸준히 소비되는 야생화 종류에 대한 재배 농장수를 조사한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예전이나 현재에도 소량 재배되며 많은 농장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종류로는 쑥부쟁이, 구절초, 범부채, 섬기린초, 매발톱꽃, 송악, 금낭화, 옥잠화, 꽃범의꼬리, 상록패랭이, 수호초, 송엽국 등이었다.

쑥부쟁이와 구절초는 대규모 공원녹지조성사업 등의 테마 야생화 종류로써 이용되며, 매발톱꽃과 금낭화 등은 꽃이 아름다워 가정용으로 많이 이용한다. 또한, 송악, 상록패랭이, 송엽국은 상록성으로 가정용과 조경용 등의 용도로 소비되고 있다.

4) 향후 전망있는 야생화 종류

향후 전망이 많다고 생각되는 야생화 종류는 물억새, 억새, 꽃창포, 맥문동, 꽃잔디, 벌개미취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물억새와 억새는 벼과식물로 잡초에 피압 당하지 않아서 하천정비사업 등에 대량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꽃창포는 붓꽃과로 습지에 강하여 수변(정수)식물기능도 가능하며, 꽃도 아름다워 관광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또 맥문동, 꽃잔디는 상록이면서 현장관리가 용이하고 척박지에서의 생육도 가능하며, 벌개미취는 국화과의 한국특산종으로 습지에서 잘 자라고 대체로 병충해가 없으며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어 잡초에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들과 붓꽃도 전망있는 야생화 종류로 주목하였다.

2. 개선방안

1) 재배 및 유통상의 개선방안

정보화 기반구축과 생산자금의 지원확대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결같은 의견은 안정적 재배를 위한 계약제의 확충이었다. 계약제가 실현된다면 재배업자는 농장규모에 알맞게 적정량을 적당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으며, 농장의 재배면적 전체를 유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야생화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야생화 농장의 재배업자들은 많은 경험과 숙련된 재배기술을 통해 우수한 종류를 개발해 나가고 정부는 소비 근원인 일반 국민이 야생화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오래 간직하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업자들도 재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재배정보나 소비정보를 빠르게 전달하여 재배, 유통, 소비 측면이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힘써야 한다.

2) 시공 및 제도상의 개선방안

각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으로 조경공사에서 조경설계가와 식물생태 전문가가 서로 협력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며, 적어도 처음 설계량보다 식재량이 줄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정부정책 변화에 의하여 야생화의 주 재배 종류와 재배량이 변수로 작용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야생화 농장의 경영수지 개선과 유기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농장주들이 깨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어촌정비법을 이용한다면 야생화는 관람이나 관광할 수 있는 소재로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나 기관에서는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줄 필요가 있으며, 보조 및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또,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지정하는 멸종위기야생식물 중 농장의 규모나 자생지의 특성에 따라 몇몇 야생화 종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서식지외보전기관(棲息地外保全機關)으로 지정하여 경제적인 지원의 폭을 넓히고 지속적인 농장 운영 관리를 해줌으로써 대규모 농장의 독점을 막고 야생화 종류의 증식을 통해 멸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야생화 농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라북도 와 그 인접지역에 있는 6개의 농장을 조사 대상 농장으로 선정하고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하였다. 조사 내용은 2005~2007년의 야생화 재배량 특성, 야생화 재배전망, 야생화의 판매, 야생화의 재배·유통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었다.

야생화 종류별 재배량은 노랑꽃창포가 전체 재배량의 10%로 가장 많이 재배하고 다음은 물억새 9%, 억새 8%, 갈대 7%, 꽃잔디 5%, 수크령 5%의 순이었다. 노랑꽃창포는 도입종이며 정수성 수생식물로서 많은 양을 재배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그 재배량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야생화를 재배함에 있어 애로사항으로는 수요 예측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해 재배종류 선택이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대규모 재배자들이 유통정보를 독점한다는 점이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유통상의 문제점으로는 후불제로 인한 자금유동성 확보문제가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대규모 재배자들과의 경쟁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이나 홍보자료의 마련에 적극성을 가져야 하겠으며, 설계 또는 시공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 재배를 위한 계약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조경회사의 소비·유행 심리에 의한 계획·설계의 패턴은 전국에 있는 야생화 농장 재배종류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건설교통부의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지침, 2003년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친화적 설계지침 등의 정부 부서나 정부 투자기관들이 하천공사 등의 설계에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훼손의 최소화를 강조하였고 특히, 하천법이 2005년 7월 하천의 환경 친화적 정비·

보전의 목적으로 개정되면서 자연형 하천 복원 공사와 친환경적인 제방 정비사업 등으로 수생식물과 습생식물의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과별로 보면 물억새, 억새, 갈대, 수크령 등의 벼과가 가장 많은 소비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현재 야생화 농장의 재배현황으로 볼 때 국민 또는 소비자들의 의견이나 성향보다 국가정책의 방향이 야생화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화에 빠르게 적응 대처하고, 주위 경관이나 축제 등을 이용한 관광농원의 승인을 받고, 멸종위기야생식물을 보전할 목적으로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야생화 농장을 운영한다면 식물의 분포가 풍부하고 다양한 전라북도와 그 인접지역 내에서의 야생화 재배업은 성공할 것이다.

앞으로는 조경 설계가의 생태를 고려한 야생화의 식재 설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적인 정책과 조례의 제정, 야생화 소비의 주체인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등이 바탕이 된 야생화 농장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1. 길봉섭, 김영식, 김창환, 최성규, 이종일(1999) 야생화 개발을 위한 전라북도 지역산 자원식물조사. 한국자원식물학회지 12(1): 43-49.
2. 김종호, 박광우(2002) 야생화 재배업 경영 실태 조사. 산림경제연구 10(1): 44-54.
3. 이명우, 권오준, 임봉구(2003) 환경·건설 법규론. 아카데미 서적, pp. 1012-1032.
4. 이우철, 임양재(1978) 한반도 관속식물의 분포에 관한 연구. 식물분류학회지 8: 1-33.
5. 이창복(1980)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서울.